

## 『동산대종사 석영첩』(1967)의 발간과 의의

김 광 식\*

### | 목 차 |

- I. 서언
- II.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편찬
- III. 『동산대종사 석영첩』 발간 의의
- IV. 결어

### | 국문초록 |

본 고찰은 1967년, 현대 고승인 동산(범어사)의 제자들이 발간한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발간 배경, 자료수집, 편집, 성격 등을 정리한 논고이다. 지금까지 『동산대종사 석영첩』에 대한 주목은 학계에서는 부재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이 책은 한국 현대 고승자료집의 역사 및 현대기 범어사 역사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이 책의 발간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승 문집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고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다. 첫째, 이 책의 발간 배경 및 기획에 대해 다루었다. 즉 이 책은 동산이라는 범어사 고승이 열반에 들자, 그의 사상을 추모하려는 제자, 신도들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이 책은 사진, 어록, 역사적 설명 등이 종합된 특별한 책이기에 그에 필요한 자료수집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특임교수 / [jiher77@hanmail.net](mailto:jiher77@hanmail.net)

의 작업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대한 역사적 정리를 하였다. 셋째, 편집 작업의 과정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과정, 관련자, 장소 등을 정리하였다. 넷째, 이 책이 갖고 있는 평가 및 의의에 대해 다루었다. 이 책 발간으로 몇권의 고승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1960~1970년대 불교사에서 고승 어록집 발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개요, 성격을 갖고 이 고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정한 자극을 줄 것이다. 그는 동산큰스님의 역사, 범어사의 현대사, 현대 고승 문집의 흐름 등이다.

주제어 : 동산큰스님, 범어사, 고승 문집, 성철스님, 광덕스님, 원두스님

## I. 서언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는 불교를 위해 헌신한 수 많은 고승이 있었다. 그 고승들의 구체적인 고뇌, 지성, 행적은 자료(문헌, 증언 등)에 의해 해석되고 이해된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이 자료집으로 묶여 지고, 그에 근거하여 역사가 서술되어야 할 당위성을 만난다.

일제하 불교에서 나온 고승 자료집은 『용성선사 어록』(1941), 『경허집』(1943)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67년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발간에 영향을 받아 고승의 문집 및 자료집이 다수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근현대 고승에 대한 자료집은 상당수 발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발간이 필요한 고승이 있다. 근현대 불교사의 자료집 발간은 1960년대 후반 삼보학회의 『한국불교최근백년사』 편찬 작업(1965~1969)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이후 1996년 민족사에서 펴낸 『한국 근현대 불교자료전

1) 김광식, 『三寶學會의 『韓國佛敎最近百年史』 편찬 始末』,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집』(전 69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집이 나왔다.

이와 같은 고승 법어집, 문집, 자료집에 의해서 한국 근현대불교사는 서술되었다.<sup>2)</sup> 필자는 근현대 불교를 연구하면서 자료집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자료집 발간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였다. 그리고 자료집 및 구술증언 자료집의 편찬도 연구 주제로 인식하였다.<sup>3)</sup> 이는 불교사학사의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집에 대한 분석, 이해는 빈약하였다. 요컨대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이 글은 한국 현대불교에서 활동한 고승 자료집의 출간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되는 『東山大宗師 錫鬘貼』(1967)의 편찬 과정과 성격을 살피려는 논고이다. 필자는 근현대기 고승중에서 3·1운동 민족대표인 한용운과 백용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백용성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인 대각사상연구원의 연구부장을 1998년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용성의 문중 승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백용성의 상수제자로 알려진 東山 큰스님(1890~1965, 이하 동산으로 약칭)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백용성 사상(정화사상, 계율)을 계승하여 조계종단을 재정립한 불교정화운동을 진두지휘한 주역이었고, 조계종단 중정을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머문 범어사와 동산의 연구를 수행하고 증언 자료집도 발간하였다.<sup>4)</sup>

2) 김광식, 「근현대불교사 연구 50년의 성과와 전망」, 『불교평론』 61, 2014.

3) 김광식, 「고승 연구와 불교 구술사」, 『전자불전』 20, 2018.

4) 김광식, 「하동산의 불교정화」,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 「범어사의 사격과 선찰대본산」,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2007, 영광도서 ;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2008, 영광도서 ; 『동산의 법맥과 전법 - 용성·성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7, 2015 ; 『금정총림 설립의 역사와 범어사의 정체성 - 백용성 사상의 계승의식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8, 2016 ; 『동산사상의 재조명』, 인북스, 2016.

이런 연고로 이 글에서는 동산에 대한 최초의 자료집인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전모를 다루려고 한다. 필자는 근현대 불교, 백용성 문중, 동산, 성철, 범어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원두스님(범어사)에게 많은 자문을 받았다. 그는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기획, 편찬을 담당할 주역이었다. 필자는 그에게서 편찬 과정과 성격에 대해 청취하였는데, 그것이 이 글의 근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청취 내용은 그 자체를 역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동산문도와 범어사 역사 뿐만 아니라 각처의 고승 문집이 발간되게 촉발하였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에는 범어사 현대사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동산은 범어사에서 1912년 출가 이래 후 50여년을 지냈고, 범어사 선원의 조실 및 주지를 역임한 범어사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범어사는 동산문도의 거점 사찰이 되었다.<sup>5)</sup> 동산에게 영향을 받은 부산지역 불자들의 행적 및 사진도 이 책에 나온다. 요컨대 부산불교의 현대사에서 이 책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기획, 자료수집, 편집,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학술적인 논문이라기 보다는 역사의 뒀안길을 회고, 소묘하는 성격의 글이다.<sup>6)</sup> 그러나 이 글이 고승의 법어집·문집, 동산, 범어사에 대한 연구의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한다.

5) 범어사에 동산의 부도가 있고, 동산 기일에 매년 추모제를 지낸다.

6) 50년 전의 일을 성실히 증언한 원두스님(동산 상좌, 원로회의 사무처장 및 종정 사서실장, 불교 교단사연구소장)에게 감사드린다.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증언을 청취한 것은 2019년 5월 18~19일, 학림사(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이었다.

## II.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편찬

### 1. 편찬 기획

『동산대종사 석영첩』(이하 『석영첩』으로 약칭)은 동산의 영결식(1965.4) 도중에 기획되었다. 동산은 조계종단의 종정을 1954~1955년, 1958~1962년 두차례나 역임한 한국 현대불교의 고승이었다. 그는 불교정화운동을 추동하고 견인하여 1950년대 불교계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고승이었다. 이런 연고로 그가 1965년 4월 24일(음력, 3월 23일)에 입적하자 그의 영결식은 조계종 종단장으로 거행되었다.<sup>7)</sup> 그의 영결식은 4월 30일, 범어사에서 거행되었다. 동산의 7일장(4.24~4.30)이 『석영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여년 전의 당시로 되돌아가 그 전후사정을 살펴 보겠다. 이 책의 말미에 나온 후기에는 편집자가 ‘錫鬘帖刊行會 園頭’로 나온다. 그렇다면 석영첩간행회의 실체는 있었는가? 필자가 여러 정황을 탐구한 결과 간행회의 명칭은 전하지만, 실체는 없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책자 발간에 동의한 동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간행회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즉 회장도 없었고, 정식 출범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책 출간을 기획, 동의한 동산 제자들이 임의로 정했다. 여기에서 그 전후사정을 기술한 편집자인 원두의 회고 글인 「후기」를 제시한다.

이 錫鬘帖은 스님께서 남기신 法語와 日記 그리고 所藏하셨던 사 진들을 모아 엮은 스님의 行績입니다. 끼쳐주신 法恩을 잊지 못하여 그 遺薰을 길이 간직코자, 저희 몇몇 上佐와 그 뜻을 隨喜해 주신 在家弟子들 사이에 이 책자의 刊行이 發起되었습니다.<sup>8)</sup>

7) 『대한불교』 1965. 4. 25., 호외, ‘圓寂, 前宗正 東山大宗師’.

8) 『동산대종사 석영첩』, 진수당, 1967, 70쪽.

이렇듯이 동산의 법은을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자 나선 ‘몇몇 상좌와 재가제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이었는가? 원두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인물이었다.

발의, 기획, 편집; 원두  
기획, 동의; 능가, 재운, 무진장, 성철  
편집; 화엄, 지유, 광덕  
후원; 고암, 홍선  
재정 지원; 정명월, 복덕심

이렇게 『석영첩』의 기획은 동산의 중견제자들이 기획, 발의하였다. 동산의 상수제자로 알려진 성철(해인총림 방장, 종정)은 실무적인 기획보다는 자문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동산을 흠모하였던 보살들의 동참 및 재정 지원이 있었다. 여기에서 발간의 기획자인 원두의 육성 증언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원두는 16년 전인 2004년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제가 그것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동산스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장례식 후의 문중회의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소박한 것을 느꼈지요. 특히 동화사에 있을 적에 설석우스님의 장례 회보가 나온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였어요. 동산스님의 자료, 어록, 사진 등을 모으고 자료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능가스님과도 상의를 하였어요.)

원두는 최근,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털어 놓았다. 예전의 증언과 거의 같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뜻에서 그를 옮겨 본다.

---

9) 김광식, 『아! 청담』, 화남, 2004, 93~94쪽.

동산스님이 입적하시자, 저는 범어사로 내려가서 영결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영결식 준비는 청담스님의 진두지휘하에 진행되었어요. 저희 상좌들은 할 일이 매우 많았지요. 어떤 회의에서는 스님의 영단에서 『금강경』 독경을 할 것인가, 나무아미타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입산 초기에 들렀던 동화사에서 당시 동화사 주지인 배응연 스님이 저에게 소개한 설석우스님의 『장의휘보』에 착안을 하고, 나는 장례 준비보다는 동산스님의 자료집 출간을 준비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화사에서 배응연스님이 나에게 가리방으로 작성한 휘보를 보여 주면서 특히 도지사가 한 추도문을 읽어주고 그 뜻을 설명을 해주면서 은근히 석우스님이 큰스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자랑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아마 나를 동화사에서 출가하라는 권유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나는 우선 동산문도 스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보살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사진사를 수배해서, 조문 장면과 영결식 장면을 찍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sup>10)</sup>

이렇게 원두는 이 책을 기획하였다. 입산 과정에서(1958, 가을) 들렀던 동화사에서 배응연 주지로부터<sup>11)</sup> 들은<sup>12)</sup> 설석우의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薛石友大禪師 葬儀彙報』(1958.2)가<sup>13)</sup> 그 단초이었다. 그래서 그는 동산문도의 중견 승려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였

10) 2019년 5월 18일 원두스님 증언, 학림사(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에서.

11) 『대한불교』 1960.1.1. 2면, 「광고」, 배응연이 주지로 나온다.

12) 배응연 주지가 출가 지망생인 원두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가 작용하였다. 우선 자신이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원두스님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밝히자 그에 대한 우호성의 표출이었다. 그리고 원두스님이 광주고를 졸업하였는데,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엘리트로 대우를 해주었던 시절이었다.

13) 필자가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제원은 18.5 × 25.5cm, 30장의 등사본이다. 개요는 석우선사 약력, 장례식 요기(要記), 식순, 조기(弔旗), 조전(弔電), 화환 접수, 조사(弔辭) 등이다.

다. 이에 대해서 원두는 문중의 완전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다.<sup>14)</sup> 이런 내용은 책의 서문을 쓴 광덕의 글에도 나온다.

이 책은 주로 저의 존경하는 사제 園頭스님이 기획하고 편집 출판한 것이운데 이 일이 선방 수좌의 손에는 찍 버거웠던 모양입니다.<sup>15)</sup>

즉 원두가 기획과 편집·출판을 주관한 것으로 보는 곳이 타당하다. 원두의 제안에 대해 제일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물은 능가(1923~2020)이었다. 그는 동산의 맞상좌로 범어사, 조계종단에서 동산을 적극 외호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찬동은 동산문도들의 지지를 의미하였다. 그밖에 재운, 무진장은 기획 과정에서 원두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지유(범어사 방장)는 자료수집의 녹취과정에, 광덕과 여환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참여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 깊게 동의한 스님은 능가스님입니다. 그 스님은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겠다고 하시면서 책의 이름을 ‘偉容集’으로 했으면 하면서 적극 찬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운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그때 동래포교당 포교사를 했는데, 내가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할 당시부터 나를 아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지요. 지유스님은 그 후에 동산스님 녹음테이프를 듣고 어록을 정리하는 것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에는 내용은 전혀 몰랐지요. 1959년 범어사에서 『선문촬요』를 갖고 수좌들이 장설봉 스님에게 강의를 들을 때에 내가 잉크를 사 나르고 할 때 그 스님이 가리방 작업을 하였어요. 그래서 나와 인연이 됐는데, 어록을 정리하는 것을 아주 잘해요.

14) 김광식,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407쪽.

15) 『동산대종사 석영첩』, 진수당, 1967, 3쪽.

또 무진장 스님에게 내가 말을 했더니 기록은 남기는 것은 좋겠다는 단순 동의를 했어요. 그 나머지 스님은 책 나올 때 참여했지요.<sup>16)</sup>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원두는 師兄인 승려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그 연 후에 원두는 맞사형인 성철을 김룡사로<sup>17)</sup>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다.

내가 『석영첩』의 기획과 편집 때문에 김룡사를 세 번이나 찾아가서 성철스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은 계전(국청사, 동산 상좌)이와 같이 갔어요. 한번은 여름이었고, 두 번째는 가을이었어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한 기억은 분명합니다. 왜 기억을 하나 하면 내 고등학교 선배인 박성배 교수가 동국대 교수를 하다가, 그만 두고 거기에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나를 만나서 양지 바른 산비탈에서 문집을 내는 것에 대한 원칙을 놓고 이야기를 하였던거예요. 내가 성철스님을 뵈고는 동산스님 비석의 비문에 대해서 거론하였더니, 성철스님은 ‘내가 써야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후추의 정식 문집도 단호하게 ‘내가 한다’고 하셨습니다.<sup>18)</sup>

이렇듯이 성철도 작업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면 작업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원두는 범어사 신도회에 영향력이 있는 신도들을 만났다. 그들은 정명월,<sup>19)</sup> 복덕심이었는데 이들은 동산을 신뢰하였던 왕보살들이었다. 이들은 원두의 제안을 듣고 적극 찬동하였는데, 신도들로부터 작업비용을 모아주기 시작한 화주의 주역이었다. 작업 초

---

16) 2019년 5월 18일, 학림사 원두스님 증언.

17) 성철은 김룡사에 주석하였다(김광식, 『성철의 꿈과 김룡사 운달산 법회(1966)』, 『대각사상』 33, 2020).

18) 2019년 11월 15일, 죽림정사(장수, 용성생가)에서 채록. 원두스님은 세 번째 방문은 1966년 봄이었는데, 부산의 신도 15명과 함께 다녀갔다고 회고했다.

19) 그의 아들이 재무부장관, 은행장을 역임하였기에 범어사 신도회에서는 영향력이 컸다.

기에 범어사 사중에서 제공한 비용은 일체 없었다.<sup>20)</sup>

## 2. 자료수집

동산의 영결식이 끝나자, 원두는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나섰다. 조문 과정과 영결식에서 전속 사진사 1명을 통해 많은 사진을 확보하였지만 그는 필요한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범어사 상지전에 작업실을 차려 놓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나는 그래서 범어사 상지전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를 작업실로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 동산스님 자료는 선과스님이 관리를 했습니다. 선과스님과 정관스님이 동산스님을 제일 가깝게 시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과스님에게 취지를 말하고, 꼭 필요한 자료를 구해서 상지전으로 갖고 왔어요. 거기에서 동산스님이 하신 보살계 범문 테이프, 동산스님에게 오고 간 편지들을 보게 되었지요. 보살계 녹음테이프를 구해서 지유스님에게 제공을 하고 녹취를 부탁했어요. 지유스님은 그때 녹음기를 갖고 있어서 부탁을 하자, 지유스님은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선과스님에게 편지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봉스님에게 오고 간 편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동산스님과 인연이 있는 큰스님들을 찾아가게 되었지요.<sup>21)</sup>

즉 원두는 범어사에 보관된 동산 자료 즉 녹음테이프, 편지, 사진 등의 자료 수집을 하였다. 그리고 그를 열람한 후에는 범어사 외부에 있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그때 원두가 찾아간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20) 범어사와 동산문도회에서는 동산의 비석 건립도 추진하였다. 그를 주관한 승려는 덕명스님이었다. 원두스님의 회고에 의하면 비석 건립을 하고도 업자에게 작업 비용을 주지 못해 범어사 경운기를 잡힐 정도로 범어사 재정 상황은 어려웠다고 한다.

21) 2019년 5월 18일, 학림사 원두스님 증언.

경봉; 통도사 극락암  
구산; 동화사  
양청우; 조계사  
관응; 조계사  
청담; 도선사  
대의; 심광사(대전)  
서운; 동화사  
강석주; 칠보사  
원담; 수덕사  
혜암; 광덕사(천안)  
경산; ?  
이종익(불교학자)<sup>22)</sup>; ?  
박충식(전국신도회장); 병원(서울)<sup>23)</sup>  
한영석(부산 선거관리위원장)<sup>24)</sup>; 부산  
서기석(경찰간부); 동대문구청(서울)<sup>25)</sup>

이렇게 원두는 동산과 연고가 있는 사부대중을 찾아 나섰다. 이는 정력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었다. 경봉을 찾아간 과정에 대해서 원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동산스님의 유품을 살피던 중, 유품에 경봉스님께서 동산스님께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산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편지가 극락암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경봉스님을 찾아 갔지

---

22) 김광식, 『이종익』, 『불교평론』 78, 2019.

23) 박충식의 글은 그가 별세하기 1주일 전에 병원으로 찾아간 원두스님이 병상에서 전해들은 것을 정리하여 기고하였다. 원두스님 증언.

24) 그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 지회장(1966), 부산불교신도회 초대 회장(1967)을 역임했다.

25) 서기석은 고위 경찰직에서 퇴직하고, 그때에는 동대문구청장으로 재직하였다.

요. 그것이 아마 1965년 여름, 하안거 도중일 것입니다.

극락암에 가서 경봉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요. 경봉스님께서는 큰스님들과 주고 받은 편지를 연도별로 묶어 놓으셨더군요. 그중에서도 한번에 탁! 찾아서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스승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의와 양말을 챙겨주시고, 책 내면서 쓰라고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경봉스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네가 나에게 왔다 갔다 하더니, 원두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동산스님 책을 내는 것을 경봉스님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감격해 하셨습니다.<sup>26)</sup>

경봉은 찾아 온 원두를 격려해주면서 동산이 경봉에게 보낸 편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편지는 『석영첩』에 수록되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후 원두는 청담을 찾아 갔다. 청담에 대해서는 15년 전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런데 그 작업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중략) 어느날 밤, 도선사에 가서 청담스님을 뵈고 사정을 이야기하였지요. 그랬더니 스님은 저의 말을 다 듣고서는 썸지에서 돈을 꺼내 봉투에 담아 제게 주면서, “액수는 생각하지 말고 가져 가져가서 보태 쓰거라” 하시면서 “하는 일에 후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돈은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지요. 그래 저는 그 돈을 받아 선학원으로 와서 같이 일하는 스님들에게 밥도 사드린 기억이 나요.

스님의 그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을 불어 넣어주었지요.<sup>27)</sup>

원두는 경봉, 청담 등 고승을 탐방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격려도 받았

26) 원두, 「선교를 겸비한 희유한 도인」, 『三笑窟 法響』, 통도사 극락암, 2020, 59쪽.

27) 김광식, 앞의 책, 2004, 94쪽.

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료수집을 할 수 있었다. 최근에 원두는 필자에게 양청우와 관응을 만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조계사 주지를 한 양청우스님을 찾아 갔어요. 그 스님은 그때 날 보고 잘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은사인 『박한영 문집』을 주면서 참고하라고 했어요. 청우스님은 자료는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응스님을 조계사에서 만났습니다. 관응스님은 우리 스님이 말년에 수원포교당에서 법문을 하셨을 때에 원보산 스님, 그 스님 상좌인 희묵스님, 관응스님도 들었습니다. 제가 시봉을 하였는데, 그때 관응스님은 용주사 주지를 하셨기에 제가 관응스님을 조금 알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에 만나서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당일 주관한 조계사 법회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동산스님의 자료를 갖고 있는 신도들은 협조를 하라는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법회에 왔던 연유로 보살 한명과 비구니 한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은 보살로 있을 때에 우리 스님을 신하다가, 출가한 스님이었어요.<sup>28)</sup>

이렇게 원두는 당시 고승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한편 원두는 책의 출간은 6개월이면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해 보니 만나야 할 대상자도 많았고, 자료수집도 간단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집 자료의 분석, 편집, 해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3. 편집 작업

원두는 수집된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편집에 주력할 때 암초를 만났다. 우선 동산문도 내부에서 작업을 비판하고, 불만을 품었던 일부 승려

28) 2019년 5월 18일, 학림사 원두스님 증언.

들이 있었다. 그 비관은 승남이 후배인 원두가 그런 일을 독단한다는 원성이었다. 동산의 사제이면서 그 당시에는 동래포교당에 머물던 고암은 작업 비용을 화주하여 전달하였지만<sup>29)</sup> 대부분은 무관심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두는 “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스님들의 반발도 있어 정신적으로 괴롭고 점차 저는 지쳐갔다”고<sup>30)</sup> 회고하였다.

작업의 암초는 당시 범어사 주지인 지효의 사업 추진을 놓고 전개된 문도 승려들 간의 갈등 구도이었다. 즉 범어사 주지인 지효는 禪農一致 차원에서 범어사 외부의 땅을 매각하고, 그 매각 자금을 활용하여 범어사 내의 산을 개간하여 농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찬반 논란으로 지효는 범어사를 떠나고, 동산문도의 내분이 심각하였다.<sup>31)</sup> 이때, 원두는 그에 휘말리게 되자, 작업 장소인 범어사를 떠나 부산의 법제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제가 책을 내는 도중에 범어사에 내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처음에는 신도집으로 갔다가 부산 법제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범어사 주지를 하시던 지효스님이 땅을 팔아서 자급자족을 하는 농장을 만든다고 해서 스님들이 반대를 하고 신도들도 반대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반대를 하였더니 지효스님 상좌들이 나를 절 밖으로 나가게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도 스님들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범어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sup>32)</sup>

즉 범어사에 내분이 일어나자, 원두도 그에 관련되어 범어사를 떠났

29) 고암은 동래포교당(범륜사)에 주석하였다. 신도들에게 비용을 걷어서 범어사로 와서 원두에게 제공하였다.

30) 김광식, 앞의 책, 2004, 94쪽.

31) 김광식, 「지효; 자급자족 총림 건설에 헌신한 선승」, 『불교평론』 73, 2018, 85~91쪽.

32) 2019년 5월 19일, 학림사 증언.

다. 그래서 『석영첩』의 작업실은 그때부터 몇 차례를 이전하였다. 작업의 이동처는 다음과 같았다.

범어사 상지전(원두, 지유) → 신도집(부산, 보수동 ; 원두, 지유)  
→ 법제사(부산 ; 원두, 화엄, 지유) → 팔정사(서울 ; 원두, 지유) →  
선학원(서울 ; 원두, 지유) → 청풍장 여관(서울 충무로 ; 원두, 광덕)

처음으로 간 곳은 부산 신도집이었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법제사(부산)라는 비구니 사찰이었다. 범어사에서 나오게 되자 우선 급한대로 원두가 알고 지내던 신도집으로 갔다. 그 다음에는 법제사로 갔다. 법제사는 2층 건물이었는데, 2층이 비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원두가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한 결과이었다.<sup>33)</sup> 이때 원두는 영천 토굴에 있는 사형인 화엄을 법제사로 오게 하여, 편집을 함께 하였는데 법제사에서는 1년간을 작업하였다.

서울의 팔정사는 연호 비구니가 주석한 사찰이었는데, 수덕사 선승인 혜암이 서울에 오면 머물던 곳이다.<sup>34)</sup> 원두는 동산 생존시, 『석영첩』의 편집 이전에는 수좌로서 혜암을 시봉하였다. 그런데 혜암은 팔정사에 자주 머물렀기에, 원두도 팔정사와 연고가 있었다. 그 후에는 선학원에 방을 얻어서 들어갔다. 당시 선학원에는 금오(조계종 부종정)의 제자인 월조가 있었다. 그는 원두와 친근하여 안내하였다. 그래서 원두가 당시 선학원 주지인 범행을 찾아가서 부탁하였다.

한편 그 때에 원두는 그와 친근한 흥천사의 산내 암자인 적조사에 있었던 인환(동국대 교수 역임)을 찾아 가서 편집의 방향을 문의했다. 적조사는 인환의 은사인 최원허가 주석한 사찰이었다. 당시 인환은 해인

33) 제주 근대불교의 중창주인 봉려관(비구니)의 법손이 살던 사찰이었다. 법제사의 조실은 화선, 주지는 범련이었다.

34) 김광식, 『춘성 - 만해제자 · 무애도인』, 2014, 중도, 202~206쪽.

대 후신인 마산대를 다니다가<sup>35)</sup> 1962년 봄에 동국대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그후 동국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그 무렵 원두와 인환은 1950년대 후반 통도사에서 만난 인연을 되살리면서 친근하게 지냈다. 원두는 적조사에 개인적으로 왕래하면서 편집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시절 인환은 운허의 『불교사전』 서술 및 편집을 함께 하였던 범정과도 친근하게 지냈다. 이런 연고로 적조사에는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원두는 2008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 증언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제시한다.

최종 편집 작업은 적조암에서 하였지요. 거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인환 선배님, 그리고 범정스님도 머물고 있어 저의 작업을 도와 주었습니다. ‘석영첩’이라는 제목을 붙여준 것은 인환스님이었고, ‘여시상(如是像)’이라는 책 안의 한 제목을 붙여준 것은 범정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대종사 석영첩』의 한문 글씨는 오법안 스님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2주기에 책을 출판하도록 저를 도와서 일을 마무리 하게 해주신 여환스님께 범어사로 가시도록 하고<sup>36)</sup>

위의 회고 내용에 나오듯 편집의 개요는 적조사에서 윤곽을 잡았다. 적조사에서의 작업은 인환의 회고록에도 나온다.

적조암에서 동국대 대학원 다닐 무렵, 원두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은 범어사 동산스님의 상좌예요. 동산스님은 우리 현대불교의 큰 인물이었는데 그에 맞게 상좌들 많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수십 명이 되는데 원두스님이 스승을 기리는 사진첩을 내고자 발심했어요. 큰스님들 상좌들이 문집을 내는 일은 더러 있지만 사진 기록을 남기는 일

35) 인환, 『나의 발심수행장』 상권, 문헌, 2017, 361~368쪽.

36) 김광식, 앞의 책, 2008, 411쪽.

은 이전에 없었어요. 다른 상좌들은 관심이 없으니 자기라도 나서서 스승의 공덕을 세상에다 널리 알리고, 또 행적을 남기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거야. (중략) 이 작업을 적조암에 와서 시작했던 말이에요. 자연히 나도 자문도 하고 같이 협력했는데, 사진첩 이름을 『석영첩』이라고 그랬어. 주장자의 그림자라는 뜻이니 스님의 발자취가 담긴거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진으로 그렇게 족적을 남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sup>37)</sup>

이렇게 적조사에서 작업은 인환의 회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책의 디자인, 사진 배열의 작업은 누가 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원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 책의 인쇄는 『불광』을 인쇄한 박충일이 하였는데, 그 사람이 소개한 선생이 윤평로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주사범을 나왔는데 그때 이화여고 미술선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친구의 친구이었습니다.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고도 했는데, 내가 자료와 사진을 들고 이화여고에 몇 차례 출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서 편집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물론 편집의 기본은 내가 하였지만, 그 분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진 설명은 기본적인 초안은 내가 했고, 인환스님이 읽고 보완해 주었지요.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진은 사진사 출신인 민도광스님이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사진을 많이 인화해서 주었고, 동산스님의 전신 칼라 사진은 이건호에게 받았어요. 그 시절 이건호는 부산 조선소에 근무하던 불교청년이었습니다. 예전에 동산스님의 구술 인터뷰를 할 때 이건호 선생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sup>38)</sup>

이와 같이 석영첩의 편집 및 디자인의 작업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37) 인환, 앞의 책, 문헌, 2017, 395~396쪽, 401쪽에 그때, 적조암에서 찍은 사진(원두, 인환, 정련)이 있다.

38) 2019년 5월 19일, 학림사에서 원두스님 증언.

있었다. 특히 윤명로라는 미술교사의 자문이 있었다. 한편 그 책의 서문은 광덕이 썼지만, 서문의 다음에 나온 권두언은 통도사 선승인 경봉의 친필이다. 이 정황을 원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김광식; 『석영첩』에 경봉스님께서 권두언을 쓰셨습니다.

원두스님; 제가 직접 경봉큰스님을 찾아뵙고 그 책의 권두언을 부탁하였더니, 스님께서 “1주일 후에 다시 오면 써 놓을 터이니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주일 후에 갔더니 써 놓으셨더군요. 경봉큰스님을 만나기 직전 철옹수좌를 만났더니, “큰스님께서 각별히 잘 쓰신 것 같다” 하면서 으쓱해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경봉스님께 권두언을 부탁하게 된 배경에는 동산스님과 인연이 많고, 선사로서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분을 찾으니 경봉스님밖에 없었습니다. 경봉큰스님께서선 교를 겸하신 선지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 찾아갔습니다. 또한 동산스님과 경봉스님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실 정도로 친하셨고 두 스님은 선의 도반이었으며, 누구보다도 동산스님에 대해서 잘 써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권두언을 다시 찾으러 갔을 때도 경봉스님께서 “스승을 위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시면서 격려금으로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지요. 그리고 권두언을 주시면서 “내가 설명을 해도 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야, 그러니 갖다가 그대로 실어라” 하시더군요.

그 글은 본래 한 장으로 써 주셨는데, 편집을 하면서 2등분하여 활자로 만들지 않고 원본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경봉스님이 써 주신 그 원본을 지금은 분실하여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저는 동산 문중의 스님으로 그런 일을 할 자격은 없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스님이 없어서 제가 그 일을 자처한 것이지요.<sup>39)</sup>

한편 마지막 편집 작업은 서울 충무로에 있었던 호텔급인 청풍장 여

39) 경봉문도회, 『삼소굴 법향』, 통도사 극락암, 2020, 59~60쪽.

관에서 하였다. 그곳에서 작업을 한 것은 여관 주인을 원두가 그 전에 알던 불자이기에 가능하였다. 즉 주인은 부산에서도 여관업을 하던 신도이었다. 그 신도가 남해 보리암에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1962년 여름 무렵 원두는 보리암에서 기도를 하였기에 알고 지냈다. 원두는 선학원에서의 작업이 불편하자 그 신도를 찾아가서 방을 협조받아, 최종 작업을 하였다.

하여간 충무로 여관에서 원두와 광덕은 최종적인 편집 작업을 하고 인쇄를 걸었다. 동산의 상좌로 대학을 다니다가 입산한 광덕은 문필 능력이 있었던 승려이었는데,<sup>40)</sup>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1974년에 불교 잡지인 『불광』을 펴낸 인물이었다. 광덕의 참여는 『석영첩』 편찬 및 인쇄 작업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동산의 상좌인 여환과 광덕의 상의에서 나온 것이었다.<sup>41)</sup> 하여간에 충무로 여관에서 최종 작업이 이루어졌다.

원두는 위와 같이 당시 사정을 상세하게 회고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책의 편집, 협조, 도움을 준 사람 등 제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책의 목차를 살펴본다.

目次  
序  
眞影  
卷頭言  
行狀

40) 김광식, 『광덕스님의 구도행·보살행』, 『광덕스님 전집』 1권, 불광출판사, 2009.

41) 여환은 무비, 통광의 은사이다. 원두는 출가 이후, 여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 1966년 가을, 여환과 광덕은 범어사 청풍당에서 원두가 주관하고 있는 『석영첩』 발간의 후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여환은 원두에게 발간비를 제공하였고, 광덕은 발간 마무리 작업(편집, 인쇄)의 동참을 결정하였다(2020년 8월 1일, 죽립정사에서 원두 증언).

寫眞

해인사 시절

범주사 미륵불 점안

조계사 주석

가람의 중수

설법 행각

불국사 참배

일상의 체운

불교정화운동

길은 밖으로도

열반

상주하시던 도량(범어사 전경, 범어사 사적과 산내암자, 도량  
내 각 법당, 대중생활의 이모저모, 금강계단)

주변의 얼굴들

사리탑(東山慧日大宗師舍利塔碑)<sup>42)</sup>

法語

如是像(老師는 이렇게 살아 있다)

이청담; 한국불교 정화를 통해 본 동산스님

이대의; 한국불교 정화와 동산스님

손경산; 대중적이고 인자하신 스님

이종익; 내가 본 동산선사와 불교정화 운동

박충식; 따듯하고 조용한 거룩한 범훈, 국가와 중생 평화를 염원

한영석; 老師의 고절한 인품을 추앙하며

서기석; 부처님을 뵈는듯한 느낌

위와 같은 순서로 배열되었다. 이제는 각 분야별의 작업을 담당하고,  
도움을 준 인물을 제시한다.

42) 사리탑 사진에는 동산 사리탑, 동산의 진영, 동산사리탑 비문(성철 지음)이 같이 수록  
되었다.

서문 작성 ; 광덕  
권두언 제공 ; 경봉  
행장 작성 ; 운허<sup>43)</sup>  
동산 법어·일기의 정리 ; 지유, 원두, 광덕  
동산 사리탑, 비문 작성 ; 성철  
제목 제안 ; 인환  
제목 글씨, 쓴 인물 ; 오범안(직지사)  
정화불사 서술 ; 이종익(불교학자)  
길은 밖으로(세계 불자와의 유대), 서술 ; 홍교(동산 상좌)<sup>44)</sup>  
범어사 사적, 범어사 금강계단의 서술 ; 광덕  
사진 제공 ; 원두, 선과(동산 상좌), 민도광,<sup>45)</sup> 이진호(불교청년)  
사진 편집, 설명 ; 원두  
편집 디자인 담당 ; 윤명로(이화여고 미술교사)  
기념 휘호, 작성 ; 해암(수덕사)  
如是像(老師는 이렇게 살아 있다), 작명 ; 법정  
동산에 대한 평가 ; 부탁받은 인물들이 서술

이렇게 이 책은 여러 사람의 관여, 협조를 거쳐서 나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산의 비문에 대한 문제이다. 이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적인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원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 
- 43) 초안은 원두와 인환이 작성하였다. 작성된 초안을 원두가 봉선사의 운허에게 전달하고, 부탁하였다. 원두는 통도사로 입산하였는데, 그 무렵 운허는 통도사 강주로 있었다. 원두는 운허를 존경하였던 연고가 있었기에 행장 집필을 의뢰했다. 이 행장은 월운, 『耘虛禪師語文集』, 동국역경원, 1989, 323~325쪽에도 나온다. 1966년 解夏日에 지었는데, 『東山語錄』에서라고 나온다.
- 44) 弘敎는 서울대 출신 승려로, 최근 입적하였다. 영어 회화도 가능하여 자운스님(율사)의 외국 탐방시에 동행을 하였다. 동산 상좌인 興敎(창원, 성주사)가 아니다.
- 45) 사진사 출신 승려로 불교정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관하였다. 그는 정화운동의 일지, 사진으로 한국불교승단정화사 편찬위원회, 『한국불교승단정화사』, 대보사, 1996을 펴냈다.

『석영첩』에 동산스님 사리탑의 비문이 게재된 것은 전적으로 광덕스님이 주관하여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 나온 후에 오탈자가 몇 군데가 있어서 성철스님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성철스님이 비문을 쓴 것은 동산문도 내부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스님이 돌아가신 후 원응료에서 상좌와 사숙들이 모인 문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암스님, 동헌스님, 자운스님이 다 계셨어요. 그때 성철스님이 법맥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스님이 없었어요. 성철스님의 의견에 자운스님은 응원단장과 같은 박수를 보냈고, 정업스님은 ‘역시 성철스님이다’는 말을 했어요. 현 범어사 방장인 지유스님은 침묵을 지켰지요.

그때에 동산스님이 입적한 직후 오대산의 법연이라는 스님이 『불교신문』에 동산스님의 법맥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어요. 그 글에 대해서 성철스님은 대단히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그 따위로 쓸 수 있는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직접 반박하는 글로 입장 표명을 할까 아니면 천제의 이름으로 할까를 궁리한다는 말씀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사인 동산스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비문을 쓰셨을 것입니다.<sup>46)</sup>

이상과 같은 원두의 증언에는 동산 - 성철로 이어지는 법맥,<sup>47)</sup> 오대산 승려인 법연이 동산을 비판하였던 글 즉, 『대한불교』 1965년 5월 16일에 기고된 『中興祖 龍城祖師의 法脈은 東山大宗師에서 그치는가』에 대한 성철의 입장 및 동산의 계승의식,<sup>48)</sup> 동산 비문의 작성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먼저 광덕이 쓴 그 책의 서문을 보겠다.

46) 2019년 11월 15일, 죽림정사(장수, 용성생가)에서 채록. 원택, 『성철스님 행장』 110 쪽에는 1966년 10월 10일, 『석영집』의 원고 교정 편지를 받았다고 나온다.

47) 김광식, 『동산의 법맥과 전법』, 『동산사상의 재조명』, 범어사, 2016.

48) 김광식,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340~343쪽.

이 책은 주로 저의 존경하는 사계 園頭스님이 기획하고 편집 출판한 것이온데 이 일이 선방 수좌의 손에는 펴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해서 친신 만고 二년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인 것이 이제사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두스님을 도와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셨습니다.<sup>49)</sup>

여기에 나오듯 이 자료집은 원두가 주체가 되고, 다수의 협조자들의 손길을 거쳐 발간되었다. 이에 대한 사정은 원두의 편집 후기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신지 벌써 만 2년. 그동안 百方으로 자료를 모으면서 남김없이 망라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막상 일손을 대고 보니, 그 어려움이란 한 두가지 아니어서 당초의 계획보다 규모와 시일에서 얼마간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스님의 자취가 좀더 자세히 그리고 모아진 法語가 보다 많이 수록되지 못함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우나 여기서 못 다한 일이 다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우선 매듭을 짓습니다. (중략) 끝으로 글을 써 주신 스님네, 사진의 촬영과 편집을 도와 주신 분들 그리고 回向을 주신하여 주신 如幻스님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분향하고 園頭 씀<sup>50)</sup>

책이 나온 이후, 원두는 많은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확대된 일을 조율하지 못하였다. 특히 범어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여겼다. 당시 범어사의 일부 문도들은 책의 편집, 출간 비용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하였다. 그래서 원두는 작업 비용에 대한 예산의 공개 요청을 받았다. 그는 『대한불교』에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고, 당시 조계사에서 포교를 하던 무진장을 만나 상

49) 『동산대종사 석영첩』, 진수당, 1967, 3쪽.

50) 위의 책, 70쪽.

의를 하였다. 그러자 무진장은 공개를 하면 시비거리가 더욱 생긴다고 하면서 공개를 절대 반대하였다. 이에 원두는 예산 공개를 하지 않았다.

마침내 1966년 11월에 편집은 완료되었다. 그러나 출간 비용 등 난제로 인하여 그해 12월까지 인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았다.<sup>51)</sup> 이럴 때 동산 문도인 여환이<sup>52)</sup> 재정지원을 하여 출간을 마무리하였다. 그래서 책은 편집자인 원두와 책의 배포를 담당할 여환의 합의를 거쳐 동산의 2주기 추모제(1967.5.2)를 기해<sup>53)</sup> 1967년 4월 24일, 500부 한정판(비매품)으로 발간되었다.<sup>54)</sup> 동산문도회는 1967년 동산 2주기 행사를 공고하였다. 사리탑의 준공 및 『석영첩』이 발간되었음을 알리고 추모제를 널리 알렸다.<sup>55)</sup> 그 당시 책의 제작 부수, 배포에 대한 실행은 여환이 주관하였다. 책의 발간 실무자인 원두는 추모제에는 가지 않았지만 『대한불교』에 광고를 내어, 책에 대한 문의는 범어사(총무 벽파)와 법제사(원두)로 하라는 당부의 광고를 하였다.<sup>56)</sup>

### Ⅲ. 『동산대종사 석영첩』 발간 의의

『석영첩』에 대한 발간 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 책이 나

51) 『대한불교』 1966. 11. 13., ‘동산대종사 사리 봉안, 문집간행은 연말까지 늦어질 듯’.. 이 기사에 편집은 완료되었으나 출간비용 54만원이 예상되는데, 모금한 비용은 2분의 1에 해당된다고 실무자인 원두스님이 발언했다고 나온다.

52) 은사인 동산에 대한 추모, 그리고 사제인 원두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53) 『대한불교』 1967. 5. 7., ‘東山大宗師 二週期, 門徒들 錫鬚帖도 발간’.

54) 책의 제원은 21.5 × 31cm이었고, 69면(後記와 刊記의 2면은 별도)이었다. 발행은 진수당 박충일, 인쇄는 흥원상사 주식회사, 배포는 범어사 김여환이 담당하였다. 책의 제본은 2종으로 하였다. 1종은 하드카바(500부)로, 다른 1종(100부?)은 삼베로 외부를 마감했다. 이 책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동국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 『대한불교』 기자인 송재운(동국대 명예교수)은 삼베로 된 『석영첩』을 보관하고 있다.

55) 『대한불교』 1967. 4. 30. 3면, ‘광고; 東山大宗師 追慕齋(2주기) 案內’.

56) 『대한불교』 1967. 5. 28. 1면, ‘광고; 알립니다’.

오자 당시 『대한불교』의 편집부장인 박경훈은 다음과 같이 서평을 하였다.

東山大宗師의 錫影帖이 師의 2주기를 맞아 간행하였다. 錫影帖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동산대종사가 이 땅에 住錫하는 동안에 남긴 족적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족적을 따라 한국불교의 생생한 발자취를 볼 수 있음이 더욱 가치를 높인다.

동산대종사가 佛門에 귀의하면서 한국불교계의 중요한 사건들이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淨化 운동 당시의 사진들은 불교사의 중요한 자료들이다. 또는 한국불교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선양에도 크게 이바지 한 스님의 해외 교류에 관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당시의 활동상을 수기로 남기고 있어 신라 慧超의 往五天竺國傳記 이후에 있는 값진 글을 이 책에서 대할 수 있다.

우리의 불교계에 예부터 고승대덕의 어록이나 행장기는 많다. 그러나 한 스님의 행장과 어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東山大宗師의 錫影帖과 같이 우리나라 불교의 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老師의 열반, 다비, 사리 그리고 日常 茶飯事로부터 上壇法語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로 老師의 모습을 남기고자 한 편집자의 의도가 충분히 살려져 있다.

어려운 사정아래 고심하여 편찬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sup>57)</sup>

박경훈은 위의 서평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주목하였다. 첫째 고승에 대한 새로운 자료집 발간이었다. 기존 어록집, 행장기에 사진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둘째 수록 내용의 가치 평가이다. 불교정화운동의 사진, 해외교류의 사진 및 회고, 고승의 일상 생활의 단면을 세심하게 보여준 것(범어, 일기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런 서평에 대해 당시 그를 읽은 원두는 박경훈의 소개는 책을 소개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책 발간의 의의, 의미는 다루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57) 『대한불교』 1967. 4. 30., ‘서평: 동산대종사 석영첩’.

한편 이 책의 편집자인 원두는 이 책 발간으로 인해 현대 고승의 법어집, 문집 발간이 속출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향을 받았다는 대상 및 편집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滿空語錄』(1968)<sup>58</sup> ; 수덕사, 해공(원담)

『아아 靑潭祖師 : 靑潭祖師 聖跡寫眞帖』(1973) ; 도선사

『曉峰語錄』(1975) ; 송광사 구산

『法海』(1975) ; 통도사, 경봉

『南泉禪師文集』(1978) ; 칠보사, 강석주

이런 영향에 대해 원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2006년 8월 4일에 필자에게 한 것이다.

강석주스님은 선학원에서 만났는데, 석주스님도 당신의 은사이신 남전스님의 문집을 안냈는데 석주스님도 해야 하겠다면서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동화사에를 갔더니 당시 주지인 소구산스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현호스님인가를 불러서는 미래사의 궤짝에 보관 중인 노스님(효봉스님) 법문을 정리해 둔 것을 찾아 오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이후 효봉스님의 법어집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덕사에를 갔더니 수덕사 조실 역할을 하고 계시던 원담스님이 만공 조실스님의 법어집을 출판하지 못했는데 당신도 빨리 그것을 해야 하겠다고 하셨어요. 해공스님은 당시는 원담스님이라 하지 않았는데, 일타스님을 불러야 하겠다고 하셨지요. 온 천장의 어떤 보살은 저에게 당신이 신봉하는 경봉스님의 법어집도 해야 하겠다며 도와 달라고 하여, 저는 도와 드릴 자격이 없다면서 다만 경봉스님의 자료를 모아두면 경봉스님의 제자들이 간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봉스님 신도들이 그때부터 내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경봉스님의 최초 법어집인 『법해』입니다.<sup>59)</sup>

58) 『대한불교』 1968. 8. 4., ‘드디어 햇빛 본 만공어록’.

이와 같은 원두의 주장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필자가 보건대, 『석영첩』의 영향은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 발간으로 고승의 문손들이 펴낸 법어집, 문집 발간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여타 요인도 있다. 예컨대 『만암문집』은 1967년에, 『효봉어록』은 1975년에 나왔다.<sup>60)</sup> 원두가 거론치 않은 대상도 있다. 즉 『향곡선사 법어집』은 1971년, 『금오집』은 1974년, 『대의대종사 전집』은 1978년에 발간되었다.<sup>6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영첩』은 1960~1970년대 고승 문집, 법어집 발간에 일정한 자극을 주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어사 산내 암자인 대성암 비구니인 만성은 이 책에 대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고 원두는 회고한다.

범어사 암자인 대성암의 만성 비구니는 아주 큰 스님입니다. 이 스님인 나에게 말할길 대성암에 온 학교 선생이 이 책의 편집을 보고서는 굉장히 잘 되었다는 칭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의 거마비를 30만원을 주던 만성스님이 그 해에는 고생했다고 하면서 10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sup>62)</sup>

이런 증언 이외에도 다수의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평가, 비판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박경훈의 평가, 원두의 주장, 만성의 전언을 소개하였거니와 필자의 의견을 부연한다. 지금껏 고승의 법어집, 문집은 중국 선불교 및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록 및 문장 중심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석영첩』은 현장성, 기록성, 인간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동산의 활동, 현장, 대중을 중요하게 인식한

59) 김광식, 앞의 책, 2008, 408쪽.

60) 『대한불교』 1975. 6. 15., ‘효봉스님 문집 간행에 대한 자료 모집 공고’.

61) 김광식, 『근·현대불교,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2013, 537쪽.

62) 2019년 5월 19일, 학림사에서 원두스님 증언.

결과이었다. 그 밖에 『석영첩』에 담긴 다면성은 추후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현대불교사, 고승의 역사에서 역사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IV. 결어

이 글의 맺는말은 연구자들이 생각해 볼 측면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소회를 개진하는 것으로 대하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의 기획, 편집자인 원두의 역사의식에 대한 문제이다. 그 당시 승려들의 역사 인식의 수준을 고려하면 원두의 역사의식은 상당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그가 동산의 구술 증언 자료집 발간(2007~2008)을 추동하고, 종단사태(1994, 1998)에 대한 역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그는 입산 6년만에 역사성이 있는 작업을 시도하였기에 문도회 내부에서 적지 않은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책을 배포한 동산 2주기의 추모제(범어사)에는 가지도 않았다. 그는 범주사 북천암으로 일시 은거하였다. 그후에는 범어사 원효암, 봉은사에서 수행을 하다 1973년에 일본유학을 떠났다.

둘째, 범어사 및 동산문도회에 끼친 영향이다. 이 책은 1998년에 나온 『동산대종사 문집』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계승의식은 애매모호 하였다.<sup>63)</sup> 2015년에 나온 『감인대 - 동산대종사 열반 50주년 기념 사집집』에서도 계승의식은 불투명하였다. 한편 동산의 맞상좌인 성철은 이 책의 기획 단계에서는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기획자인 원두와의 이견으로 말미암아 책의 편집 작업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sup>64)</sup> 이 점은 아쉬

63) 책의 후기에 “1967년에 간행된 석영첩에 실린 약간의 글과 사진 몇 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하게 소개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동산대종사 문집』, 동산문도회, 1998, 443쪽.

은 대목이다. 지금껏 성철의 그의 은사인 동산에 대한 계승의식에<sup>65)</sup> 대한 학술적인 검토는 미약했다. 당시 성철은 김룡사에 주석하였는데, 그의 김룡사 시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sup>66)</sup>

셋째, 『석영첩』에 활용된 자료의 보존 문제이다. 책 출간 직후 책에 활용된 자료는 일시적으로 법제사(부산)에 보관되어 있었다. 일부 자료는 범어사 종무소에 돌려 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활용되었던 대부분의 자료들이 망실되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sup>67)</sup>

넷째, 책의 정체성, 성격을 점검해야 한다. 이 책에 대해 편집자인 원두는 ‘동산의 行蹟’이라 하였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사진집이다. 즉 근대 고승에 대한 최초의 사진집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었다. 동산의 활동을 전하는 사진, 일지와 유묵, 인연이 있는 인물들의 회고 및 평가의 글이 수록되었다. 나아가서 이 책은 동산 개인 역사에 머물지 않고 종단사, 불교사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범어집, 문집과는 성격이 달랐다. 『석영첩』의 정체성은 그 이후 필자가 기획·편집한 『한국불교 100년』(민족사, 2000), 『화엄사와 도광대선사』(화엄사·화엄문도회, 2008), 그리고 범어사가 기획한 『堪忍待 - 동산대중사 열반 50주년 기념 사진집』(범어사, 2015)로 계승되었다. 한편 조계종단 및 불교계에서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2002), 『종단 50년, 기록과

64) 원두스님은 그때 김룡사에 있었던 고교 선배인 박성배의 의견 즉 ‘사실대로 써야한다’는 말을 수용하였다. 그런 소신으로 성철스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성철스님은 그때 저에게 당신의 은사인 동산스님의 범어집 간행을 도와 주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마치고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어요. 성철스님은 이왕 하는 김에 폭을 넓혀서 자료가 더욱 나올 것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때에 그 일을 빨리 마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성철 사형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스럽고, 문도스님들에게 죄스러운 수가 없습니다.”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410쪽.

65) 그 의식이 범택 계승인지, 인간적인 측면인가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무비, 『남겨진 몇가지 이야기』, 『나홀로 만고의 진리를 가노라』, 장경각, 2013, 53쪽).

66) 김광식, 『성철의 꿈과 김룡사 운달산 범회(1966)』, 『대각사상』 33, 2020.

67) 원두스님은 동산스님의 일지(수첩) 2권의 분실을 가장 큰 실수로 보았다.

대화하다』(2012),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 진리의 벗얼빛』(2013),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2014), 『사진으로 보는 불광 40년 ; 빛으로 새긴 이야기』(2014) 등이 나왔다. 추후에는 이런 자료집과의 상관성이 거론되고, 불교문화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석영첩』의 논의점, 정체성 및 평가, 불교인문학적인 사진 집과의 연관성, 계승의 문제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런 소회가 이방면 연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동산문도회, 『동산문집』, 1998.  
\_\_\_\_\_,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2007, 영광도서.  
\_\_\_\_\_, 『동산사상의 재조명』, 인북스, 2016.  
김광식, 『하동산의 불교정화』,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_\_\_\_\_, 『범어사의 사격과 선찰대본산』,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_\_\_\_\_, 『동산의 법맥과 전법 - 용성 · 성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7, 2015.  
\_\_\_\_\_, 『금정총림 설립의 역사와 범어사의 정체성 - 백용성 사상의 계승의식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8, 2016.  
\_\_\_\_\_, 『성철의 꿈과 김룡사 운달산 법회(1966)』, 『대각사상』 33, 2020.  
덕 산, 『용성문도와 한국불교정화 이념』,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중도, 2016.  
원두 · 김광식, 『조계종단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20.

투고일 : 2020. 05. 01.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Published and meaningful of Buddhist Monk Dongsan's  
Seokyeongcheop

kim, kwang-Sik

This review is an essay that outlines the background, data collection, editing, and personality of Seokyeongcheop(석영첩), a Buddhist monk of the Korea Buddhism, published in 1967 by the disciples of Dongsan (Beomeosa Temple),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modern era. So far, no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eokyeongcheop, a Buddhist monk of the Great Buddhist Temple. However, the book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in the history of Korea's modern collection of historical records, as I am a health student. In other words,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a number of masterpieces. The significance of this consideration can be found against this backdrop.

Therefore, I wanted to summarize the detail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dealt with the background and planning of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n other words, the book began with the movement of disciples and believers to pay tribute to his ideas when the monk of Beomeosa Temple named Dongsan entered the Nirvana. Second, since this book is a special book that combines photographs, quotations, and historical explanations, the work of collecting necessary materials was very important. We made a historical summary of this. Third, the process of editing work was scrutinized. The process, people involved, places, etc. were arranged. Fourth, it dealt with the assessment and significance of the book. The publication of the book has led to several collections of high-profile books.

In the 1960s and 1970s, we found clues to the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ancient Buddhist writings.

With the above-mentioned outline and character, this consideration will give a certain stimulus in the following aspects: He includes the history of Buddhist monk Dongsan, the modern history of Beomeosa Temple, and the flow of modern ancient monks' writings.

**Key-words** : Buddhist monk named Dongsan, Beomeosa, collection of ancient monks, Seongcheol, Gwangdeok, Wondoo.